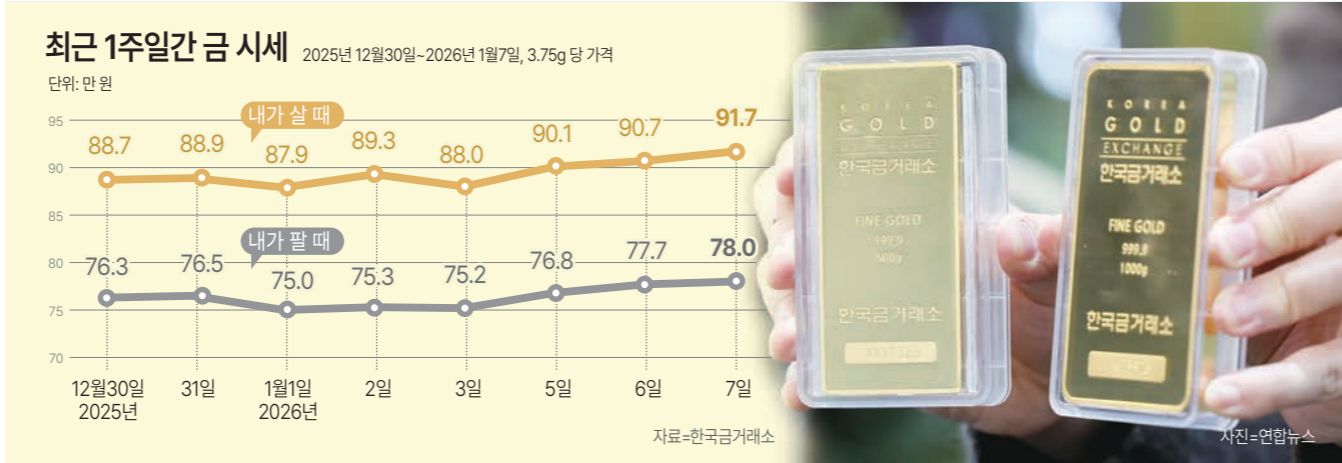


마두로 체포 여파... 국제 금값 다시 고점 찍었다

작년 저점보다 70%나 치솟아
런던시장서 온스 당 4463달러
불확실 정세에 안전자산 선호
국내 매입가도 90만 원 넘어서



국제 금값이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금 소매 시세도 1주일 새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6일 기준 순금 1돈(24K3.75g) '내가 팔 때'는 77만7000원, '내가 살 때'는 90만7000원으로 소비자가 순금을 살 때 가격이 90만 원 선을 넘어서었다.

1주일 전인 작년 연말(2025년 12월 30일)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더 선명하다. 당시 순금 한돈은 살 때 87만6000원, 팔 때 75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각각 3만1000원(약 3.5%), 2만7000원(약 3.6%) 올랐다.

국제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이 확인된다. 6일(현지 시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4463달러 수준으로 올라섰고, 같은 시점 뉴욕상품거래소(COMEX) 2월물 금 선물은 4474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지난해 가장 낮았던 금값과 비교하면 상승 추세는 더 뚜렷하다. 런던금시장협회(LBMA) 금가격 기준으로 작년 1월6일(오전 경매) 저점은 온스당 2631.80달러였는데 올해 6일 기준 현물 가격(약 4463달러)은 당시 대비 약 1832달러, 비율로는 약 69.6% 올랐다.

금값 반등의 배경으로는 '안전자산 선호'가 꼽힌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지정화 리스크가 단기간에 확대됐고,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6일 마베네

수엘라 총들로 지정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유입돼 국제 금값이 주간 고점권으로 올라섰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가 겹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장 인기는 올해 5월15일까지로 시장은 차기 의장 인선이 가까워질수록 금리 경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울러 후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문장(NEC)이 비교적 비둘기와 성향으로 평가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 기조가 유력한 경우, 이

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기회비용'은 줄어들고 안정적 자산이라는 매력은 상대적으로 부각돼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상승 추세 속 변동성 확대'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우세하다. 연준의 인하 시점과 폭, 달러 흐름,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속 여부를 올해 금값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는다.

아울러 금값은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 환산 기준 국제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쉽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하방 압력이 커진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

도착금액 179.5억 달러
투자심리 하반기 회복
美·EU 투자↑, 日·中↓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60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실제 유입된 자금 기준인 도착금액도 17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3% 늘어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 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며 하반기 들어 투자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난 점이 최대 실적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고위급 투자유치 활동과 인공지능(AI) 정책 드라이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유형별로는 공장·연구소 신설 등 그린필드 투자가 28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인수합병(M&A)은 74억6000만 달러로 5.1% 감소했으나, 3분기까지

의 금값 국면에서는 벗어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했다. 제조업 투자는 157억7000만 달러로 8.8% 증가했으며, 화공과 금속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됐다. 서비스업은 190억5000만 달러로 6.8% 늘었고, AI 데이터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투자 확대도 유통·정보통신 연구개발 분야가 성장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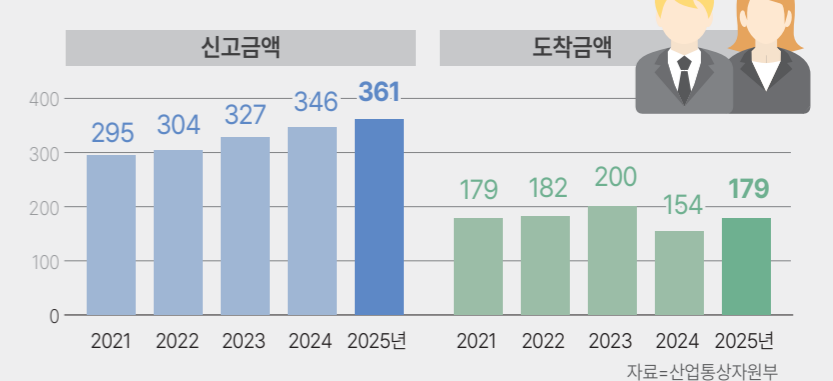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 확대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97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6% 급증했으며, EU도 69억2000만 달러로 35.7% 늘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28.1%, 38.0% 감소했다.

특히 지역경제와 고용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외국인투자의 질적 개선도 이뤄졌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된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외국인투자 유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 발전과 연계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경준 기자 gju@skyedaily.com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금액 연간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공일자리 뺀 민간고용, 작년 3분기 이후 부진 벗어

한은, 실제 고용 상황 결과 발표
건설 부진에 2024년 이후 위축
소비 늘어나 고용 증가세 반전



이력서 작성대
지난해 11월17일 서울 은평구청에서 열린 '은평 어르신 일자리박람회' 현장이 일자리를 상담하기 위해 온 어르신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박미나 기자

한국은행 연구원이 공공일자리 제외 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해 국내 고용 상황을 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노인일자리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자 이를 포함한 총고용 수치가 실제 고용 체급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과 경강희 조사역, 송병호 팀장은 '민간 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를 통해 민간고용이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으나, 2025년 3분기에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완회됐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민간고용은 건설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중장기 추세를 2024년 이후 하회했으며, 2025년 상반기까지 부진이 이어졌다. 다만 3분기에는 소비가 회복돼 증가세로 근접했다. 연구원은 2026년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5년 5만 명보다 소폭 늘어난 6만 명 수

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기술 변화 등 고용을 줄이는 요인에도 내수 개선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민간고용의 예상 추세와 실제 증가 간 격차도 2026년에는 -2만 명으로, 2025년(-8만 명) 대비 개선 전망을 냈다.

또 연구원은 민간고용이 총고용에 비해

경제 상황 변동을 더 잘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민간고용은 내수 경기와 근원물가와의 상관관계가 총고용보다 높았고, 성장과 물가 전망의 예측력도 개선됐다.

한편 공공일자리는 총고용 증가에 꾸준히 기여해왔다. 2025년 1~3분기 중 공공일자리는 14만 명 늘었으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 실업률을 0.1~0.2%p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수년간 국내 고용에서는 공공일자리, 특히 노인일자리와 공공행정 부문 취업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노인일자리 추정치는 2015년 월평균 27만 명에서 2025년 1~3분기 기준 99만 명으로 약 37배 늘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연예인 Entertainers
신경애 지음
ACSB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와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